

‘산 넘어 산’ KIA, 마운드 변화로 분위기 바꾼다



뒷심 싸움에 비상이 걸린 KIA가 코치진 개편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엔트리에 복귀한 조상우의 반전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피겨 신지아 아쉬운 시니어 데뷔전

ISU CS 크랜베리컵 프리스케이팅 동메달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신지아(세화여고)가 시니어 데뷔전으로 택한 챌린저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아는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우드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 CS 크랜베리컵 인터내셔널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4.57점, 예술점수(PCS) 57.28점, 감점 4점을 더해 총점 117.85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 점수 62.12점을 합쳐 최종 총점 179.97점을 기록한 신지아는 이사보 레비토(207.61점·미국), 소피아 사모넬기나(203.15점·카자흐스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신지아는 본격적인 그랑프리 무대에 앞서 한 단계 낮은 수준 대회인 챌린저 시리즈를 시니어 첫 무대로 선택했다.

시니어 데뷔 시즌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으로는 아랍 하차투리안의 발레 모음곡 ‘스파르타쿠스’를 골랐다.

신지아는 첫 점프 과제 더블 악셀을 무난하게

뛰었으나 이어진 트리플 루프에서 엉덩방아를 찧어 수행점수(GOE) 2.45점을 손해 봤다.

트리플 살코와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댄 신지아는 플라이 카멜 스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모두 레벨 4로 처리하며 안정감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에서 후행 점프 작지가 흔들리며 다시 넘어졌다. 집중력을 높여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에 성공했으나 트리플 러츠 단독 점프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아 GOE가 크게 깎였다.

신지아는 코레오시퀀스에 이어 스텝 시퀀스(레벨 3), 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 4)으로 연기를 마무리한 뒤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함께 출전한 김민채(경기일반)는 총점 140.95점으로 9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산 넘어 또 산을 만난 KIA 타이거즈가 마운드 변화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KIA는 11일 코칭스태프 보직을 개편했다. 불펜 코치를 담당했던 이동철 투수 코치가 1군 메인 코치를 담당하고, 이정호 퓨처스 투수 코치가 1군 불펜 코치로 옮긴다.

정재훈 투수 코치와 함께 다케시 배터리 코치가 퓨처스로 이동해 유망주 선수 육성에 나선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변화다.

KIA는 악몽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6위에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있다.

주중 롯데와의 경기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제임스 네일이 롯데 알렉스 캄보아와의 ‘에이스 맞대결’에서 승자가 돼 6경기 만에 6승을 챙겼고, 7일 경기에서는 6회 5실점을 하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워닝시리즈를 가져왔다.

하지만 트레이드 이후 전개된 NC와의 첫 대결은 결과, 과정 모두 최악이었다.

8일 경기에서 김선빈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이자 동점 투런이 나왔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4-5패를 기록했고, 비로 하루 쉬 뒤 진행된 10일 대결에서는 5-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다.

하위권 삼성·두산과 맞대결

투수 코칭스태프 보직 개편

네일 6연전 두 차례 등판

‘불펜 키워드’ 조상우 눈길

2회초 최형우의 솔로포와 위즈덤, 김호령의 투런포로 5점을 만들었지만 리드는 채 1회도 가지 못했다.

2회말 외야수 이창진의 아쉬운 수비가 이어졌고, 선발 이의리는 제구난조로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실점을 하는 등 분위기가 NC로 기울었다. 결국 KIA가 이의리를 내리고 2회부터 불펜을 가동했지만 김건국이 박건우에게 만루포를 맞으면서 5-8로 순식간에 승부가 뒤집혔다.

이후 KIA가 상대의 실책으로 2점 차까지 추격을 했지만 8회말 이창진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다시 흐름은 NC로 넘어갔다. 결과는 12-16패였다.

김도영의 복귀에 이어 아담 올라까지 돌아오면서 모처럼 ‘완전체’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지만 부상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김도영이 지난 7일 롯데전에서 부상 복귀 3경기 만에 다시 허벅지를 붙잡고 퇴장했다. 세 번째 헬스 트링 부상이 찾아오면서 김도영은 다시 없는 전력이었다.

여기에 부상 복귀전에 나선 아담 올라와 복귀 후 4번째 등판을 소화한 이의리는 각각 2.2이닝 5실점, 1.1이닝 7실점이라는 성적표를 작성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고난과 엇박자의 2025 시즌을 보내고 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KIA는 원정 12연전을 이어간다. 다음 행선지는 대구와 잠실이다.

올 시즌 3승 7패로 열세를 보인 삼성과 주중 3연전에 나서는 KIA는 이어 잠실로 가 두산과 주말 3연전을 펼친다. 두산에는 8승 1무 3패로 앞서있지만 KIA의 뒷심이 고만이다.

일단 비로 로테이션이 조정되면서 네일이 선발진 스타트를 끊는 것은 반갑다. 마운드의 가장 확실한 카드인 네일은 12일 삼성전과 17일 두산전을 책임진다.

불펜에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앞선 등판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올라와 이의리의 이닝에 따라 불펜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여기에 트레이드와 함께 ‘복덩이’ 역할을 해줬던 한재승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맞는 등 불펜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조상우가 불펜의 키워드다.

부진을 이어왔던 조상우는 재정비 시간을 갖고 지난 10일 엔트리에 재등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마운드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위기의 불펜에서 조상우가 어떤 성적표를 작성할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토종 에이스 공 쳐보고 싶다”

NC 이적 최원준 “양현종·전상현과 대결 기다려져”

NC 유니폼을 입고 ‘진정팀’ KIA를 만난 최원준(사진)이 챔피언스필드에서의 두 번째 만남을 기다린다.

최원준은 지난 7일부터 왕릉NC파크에서 진행된 주말 3연전을 통해 KIA와 첫 맞대결을 벌였다.

2016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2차 1라운드 선수로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최근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유니폼을 입었다.

‘에비 FA’로 기대감 속에 출발한 시즌이었지만 타격 슬럼프가 길어졌고, 마음과 다른 결과에 최원준의 마음도 조금씩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최원준과 마운드 강화가 필요했던 KIA는 결국 작별을 선택했다.

최원준은 “낯설 것 같았는데 다른 상대랑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았다”며 “챔피언스필드 가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홈이라서 그랬는 지 생각보다 낯설지는 않았다”고 KIA와의 첫 맞대결을 이야기했다.

최원준은 KIA와의 두 경기에서 7타수 2안타 2볼넷 1타점을 기록했다.

김도현을 첫 상대로 만났던 최원준은 “너무 잘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조금했다. 타격감이 좋아서 자신 있었는데 공이 좋았다”며 “다음에 만나면 (양)현종이 형하고 (전)상현이 형 공을 치고 싶다. 현종이 형은 오래 봤던 선수라서 상대하고 싶다. 상현이 형은 너무 자신만만하다.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 온 힘을 다해서 치려고 하겠다”고 웃었다.

10년을 생활했던 팀을 떠나 새로운 시작점에 섰지만 생각보다는 빠르게 새 팀에 적응하고 있다.

최원준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다. 대표님, 단장님, 운영 팀장님, 코칭스태프 모두가 있던 선수처럼 편하게 해주셨다. 트레이드가 아니라 FA에서 온 느낌을 받게 해주셔서 빨리 적응한 것 같다”며 “아는 형들 많고 분위기 자체가 편하다. 경기 나간다는 생각에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호준)감독님께서 원래의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서재용)수석코치님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못해도 되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기죽지 않고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감독님, 타격 코치님들이 데이터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시고 심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쪽으로 수정하고 있어서 최근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팀의 부진과 맞물려 부담이 많았던 만큼 최원준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야구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최원준은 “수비, 주루, 타격 두루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 보여드리려는 게 내 야구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틀은 내가 원래 잘했을 때 것들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수석코치님이 한두 번 못 쳐도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사실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준은 많은 응원을 보내줬던 KIA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최원준은 “10년 동안 한 팀에 있었는데 인사가 제대로 못 드리고 온 것 같아서 아쉽다.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슈팅 1개…광주FC 무기력한 패배

K리그1 2025 25R 포항에 0-1…4경기 연속 무승



광주FC가 ‘아사니 논란’ 속 시즌 첫 연패를 기록했다.

광주FC는 지난 10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열린 포항스틸

러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25라운드 맞대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시즌 첫 연패를 기록한 광주는 4경기 연속 무승

부진(1무 3패)에 빠졌다.

0-0으로 맞선 전반 추가 시간에 포항 홍운상의

원발이 광주 골대를 뚫으면 0-1이 됐고, 광주는 이

렇다 할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패배를

단 하나의 슈팅을 날리는 데 그치면서 졸전을 펼쳤다.

광주의 유일한 슈팅도 후반 27분 최경록을 대신해 교체 멤버로 나선 문민서가 기록했다.

‘이적 논란’ 속 아사니 없이 치른 경기에서 무기력한 패배가 기록되면서 아쉬움은 더 컸다. 아사니는 최근 SNS로 이적 소식을 전하면서 K리그의 뜨거운 이름이 됐다.

이란 명문 에스테그랄 테헤란FC가 아사니의 이적 소식을 SNS를 통해 알렸고, 아사니도 이에 반응하면서 이적을 공식화했다.

광주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구단과 상의 없이 이뤄진 ‘돌발 행동’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선수단은 포항전을 준비했다. 아사니는 부상을 이유

로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포항전에서 ‘에이스’의 부재를 느끼게 한 무기력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광주의 패배는 더 뼈아팠다.

그나마 위안은 ‘이적생’ 프리드손슨이 K리그 데뷔전을 치르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의 ‘장신 공격수’ 프리드손슨(196cm)을 영입했고, 후반 35분 신창무를 대신해 그라운드에 투입해 실전을 지켜봤다.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린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홈에서 연패 탈출에 나선다.

만만치 않은 상대가 광주를 찾는다. 2위에 자리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맞대결이다. 두 팀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평행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